

사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사, 동양사 전공은 제7조 1, 2, 3항 대체인정 기준을 모두 적용하고, 서양사 전공은 제7조 1항 대체인정 기준만을 인정하며, 2항과 3항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2조(신청자격)

2023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대체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저자는 논문을 단독으로 발표한 저자(단독 저자)만 허용한다. 주저자,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는 인정하지 않는다.

1. 단독저자 : 논문을 단독으로 발표한 저자

2. 주저자, 제1저자 : 논문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 연구를 수행한 저자

3. 교신저자 : 연구의 총책임자로 연구 결과의 제출 및 책임 그리고 응답까지 책임지는 저자

4. 공동저자 : 기타 공동저자

② “논문 학술지”는 국내전문학술지, 국제전문학술지, 국제일반학술지만 허용한다. 기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및 일반학술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1. 국내전문학술지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2. 국제전문학술지 : SCI, SSCI, A&HCI

3. 국제일반학술지 : SCIE, SCOPUS

③ “학술적 가치가 높은 1차 사료”는 1) 한국학계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 2) 전근대 시기의 사료로 세계적으로 현대어 번역본이 없는 자료이다.

제4조(적용 범위) 석사학위 청구 논문 대체는 “논문 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하거나 혹은 “학술적 가치가 높은 1차 사료”를 번역 및 해제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5조(학위논문 대체제도의 절차)

① 논문 제출학기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과장에게 학위논문 대체실적을 제출한다.

② 학과는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구성하며 논문심사 기간 내에 해당 제출물을 심의한다.

③ 심의결과를 졸업사정 논문결과에 반영한다.

제6조(번역 및 해제 대체제도의 절차)

① 입학 후 3학기 이상 재적자 혹은 사학과 대학원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석사과정생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번역 사료의 적합성 여부를 학과회의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학과회의의 심의 통과 이후 최소 1년 이후에 번역 및 해제본(실적)의 제출이 가능하다. 학과회의는 학과 전임교수 전원이 참석하여 회장 자료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고, 판정은 전원 일치를 원칙으로 한다.

② 해제 및 번역 언어는 한국어 및 영어로 한정한다.

③ 논문 제출학기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과장에게 번역 및 해제(실적)을 제출한다.

④ 학과는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구성하며 논문심사 기간내에 해당 제출물을 심의한다.

⑤ 심의결과를 졸업사정 논문결과에 반영한다.

⑥ 대체실적으로 인정받더라도 추후 타 언어의 2차 번역, 표절, 대필 등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연구진실성위원회에 회부하여 대체실적을 취소하고 수여된 학위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대체인정 기준)

1. 국제전문학술지(A&HCI, SCI, SSCI, SCIE, SCOPUS)에 단독저자로 1편 이상(100%)의 논문 게재 시 석사학위 논문실적으로 인정함.
 2. 국내 전문학술지(KCI등재학술지 이상)에 단독저자로 2편 이상 논문 게재(200%)시 석사학위 논문실적으로 인정함.
 3. “학술적 가치가 높은 1차 사료”를 번역 및 해제(번역 언어는 한국어 및 영어로 한정함)하여, 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70점 이상의 평가를 받을 경우에 석사학위 논문실적으로 인정함.
단, 사료의 적합성 여부를 성과물 제출 최소 1년 전에 학과회의(전임교수 전원)에서 심사받아야 하며, 전원 일치를 원칙으로 함.
- 3에 해당하는 사료는 번역 분량이 200자 원고지 400매 이상, 해제 분량이 200자 원고지 80매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자료의 성격,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상기 조건에 벗어나더라도 최종 적합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학과회의의 결정에 위임함.